

보도자료

## 맥쿼리인프라펀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투자약정체결



### ● 맥쿼리인프라의 19번째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속적 투자 이어갈 것

(2023년 11월 22일, 서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이하 “맥쿼리인프라”)는 오늘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에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이하 본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맥쿼리인프라는 총 사업비 (약 1조 2,847억원)<sup>1</sup> 중 총 2천 148억원을 투자 약정하였다.

본 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금년 3월 27일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2023년 12월~ 2028년 11월 예상)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 후 민간사업자가 30년간 (2028년 12월부터 2058년 11월로 예상)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만성 정체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이 중 본 사업인 민자구간은 10.1km)과 1단계 준공후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2단계 사업(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 지하화, 11.5km)을 통해 교통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도로 상부에 위치한 중랑천은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본 사업은 최근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 및 고금리 기조로 인한 대규모 자금조달의 어려움속에서도 대표 금융주선기관인 KB 국민은행 및 KDB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내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자금조달이 완료되었다.

본 사업은 주간사인 대우건설을 포함한 현대건설 및 SK 에코플랜트 등 국내 대형 건설사가 사업시행법인의 주주이자 시공사로서 공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맥쿼리인프라를 운용하는 맥쿼리자산운용 서범식 대표는 “2002년에 설립된 맥쿼리인프라는 국내 초기 인프라시장을 개척하고 지난 20년간 업계를 선도하면서 도로, 항만, 철도, 도시가스 등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자금운용을 위탁받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충실하면서 나아가 장학금 지급 및 봉사활동 확대 등 지역사회 기여, 넷제로를 포함한 ESG 경영 실천, 사업장 임직원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에 힘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sup>1</sup> 실시협약상 물가를 반영한 경상이며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한 불변가는 9,874억원

맥쿼리인프라는 국내 코스피에 2006년 상장된 인프라펀드(MKIF, 08898)로서 시가총액 약 5조 4천억원, 투자자 수는 20만명이 넘는다. 맥쿼리인프라 지분률의 87%는 국내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투자자 중 43%는 연기금, 보험사, 공제회, 퇴직연금 운용기관 등 기관투자자이며, 개인 투자자 지분율도 약 44%에 달한다.

맥쿼리인프라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신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서울 왕십리 및 상계동을 연결하는 동북선도시철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노선의 일부인 인천-김포고속도로, 도시가스회사인 해양에너지 등에 투자한 바 있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디지털인프라와 같은 분야도 포함하여 투자 확대를 고려 중이다. 현재 맥쿼리인프라는 총 19개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형윤 KB 자산운용 대체투자부부장, 서범식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대표, 기동호 우리은행 IB 그룹장, 강순배 KB 국민은행 CIB 고객그룹 대표, 김용해 대우건설 본부장, 박형순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부부장, 김정훈 동서울지하도로 대표, 이상운 KDB 인프라자산운용 전무, 장호현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

### 추가문의

박진욱 전무 (맥쿼리자산운용)

직통: (02) 3705 8516 / 휴대폰: 010 4102 0448

김선미 부문장 (한국맥쿼리 홍보담당)

직통: (02) 3705 8582 / 휴대폰: 010 7610 4020

[sunmi.kim@macquarie.com](mailto:sunmi.kim@macquarie.com)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맥쿼리인프라펀드,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

맥쿼리인프라펀드는 2002년 12월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인프라펀드를 설립하고 2006년 3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로서 국내투자자 비중이 87%, 투자자 수는 20만여명이며 시가총액은 5.4조원으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상장인프라펀드로 발전하였다.

맥쿼리인프라펀드는 일반펀드와는 달리 별도의 펀드 만기를 두지 않은 상장펀드로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며 실제 2002년 펀드 설립이후 투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 역시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장기 보유하면서 연금 성격의 배당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펀드 만기가 있어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펀드와는 많이 다른 점이다.

### **맥쿼리자산운용(Macquarie Asset Management)**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은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이다. 기관, 연기금, 정부 및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전세계에서 미화 5천 7백 3십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프라 및 재생 에너지, 부동산, 농업 및 천연 자산, 자산 금융, 사모사채, 주식, 채권 및 멀티 애셋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특화된 투자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그룹은 맥쿼리그룹의 일원이다. 맥쿼리그룹은 채권, 주식 및 상품 부문에 걸쳐 고객들에게 자산운용 및 파이낸스, बैं킹, 자문, 리스크 및 자본솔루션을 제공하는 다각화된 금융그룹이다. 1969년에 설립된 맥쿼리그룹에는 34개 시장에서 2만 1천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ASX:MQG).

모든 수치는 2023년 9월 30일 기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Macquarie.com](http://Macquarie.com) 에서 볼 수 있다.